더 나은 미래 조성자로서
대학시민과 기업시민의 비교 및 통합적 발전 방안 연구

김창환(고려대학교 도시재생협동과정)

Ⅰ. 서론

- 대학과 기업 관련 어원에서도 사회와의 연관성을 찾을 수 있다. University은 협동이나 조합의 뜻을 담은 라틴어인 Universitas에 그 기원을 두고 있다. Universitas라는 용어는 보편적(universale)이며 일반적(generale)인 의미 외에 조직체나 공동체의 의미를 지닌 Communica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Laurie, 1912). Company는 라틴어 Companio이다. Companio는 빵을 나누어 먹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Entrepreneur 또한 사회와 더불어 주고받는 사람이라는 의미가 내포해 있다. 무역이나 상업을 뜻하는 Commerce도 사회적 유대와 동의어였다. 기업, 기업가, 상업 모두 그 출발은 공동체와 관련이 있다. 또한 기후위기의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대학과 기업은 최우선으로 지구 공동체의 생존을 위한 과제 해결의 문명사적 사명을 부여 받았다. 이는 대학과 기업은 통합적으로 인류 공동의 책임을 선도할 힘과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 이에 사회공헌을 위한 핵심 기관인 대학과 기업에 부여된 시민(citizenship)이라는 용어는 시민은 아니지만 시민과 같은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는 지구적 책임의 실행 주체로서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대학시민 및 기업시민의 실천을 뒷받침하기 위한 지식 플랫폼으로 지역협력대학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를 통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해 기여하는 이론적 틀을 본 연구에서 규명하고자 한다.

Ⅱ. 연구내용 및 방법

1. 1972년 유엔 인간환경회의(UNCHE) 전문에서 국제 사회가 합의를 통해 제정한 글로벌 윤리 규범인 지구적 책임이 잉태되었다. 먼저 더 나은 미래 달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 선순환 모델을 제시하고,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강력한 양대 축인 대학 및 기업에게 사회에 대한 책임의 실행 주체로서 각각 부여된 대학시민(academic citizenship)과 기업시민(corporate citizenship)의 등장 배경 및 실천 과정을 비교한다.
2. 또한 포괄적이고 법적 구속력이 없는 선언적(statement) 성격의 지구적 책임 영역 중에서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선택적 영향력(selective impact)을 확대하고자 등장한 지속가능발전, 지속가능경영, ESG, UN SDGs의 전개 과정를 조사한다.
3. 더불어 오늘날 대학과 기업의 사회적 영향력은 중세시대의 교회나 로마 시대 군대의 영향력과 견주곤 한다(Goddard, 2005). 이에 사회책임 실천을 위한 지식 플랫폼으로 정착된 대학의 지역협력대학(engaged university)과 기업의 이해관계자 자본주의(stakeholder capitalism)를 통해 시민으로 각각 사회에 대한 책임을 수행하는 것을 연구한다.

♣ 통사적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도출된 내용을 기반으로 더 나은 사회 발전의 조성자(builder)로서 대학과 기업의 통합적 사회공헌을 위한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Ⅲ. 글로벌 윤리 규범인 지구적 책임(GR) 분석

그림_더 나은 미래 달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GR)** 선순환 모델



1. 유엔 인간환경선언에 따른 지구적 책임 등장 배경 및 분류
2. 더 나은 미래 달성을 위한 지구적 책임의 선순환 관계
3. 지구적 책임 이행을 위한 글로벌 의제 전개 과정

Ⅳ. 지구적 책임 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 체계 비교 분석

1. 지속가능성 이행을 위한 최초의 자발적 이니셔티브 모델_대학
2. 지속가능발전 이행을 위한 파트너십 모델_기업
3. 지속가능보고서 가이드라인(GRI) 이행 준수 모델_대학 및 기업
4. 유엔 글로벌콤팩트(UNGC) 가입을 통한 파트너십 모델_기업, 대학
5. ESG 중대성 평가 프레임워크를 통한 파트너십 모델_기업, 대학
  1) ESG 등장 배경
  2) 기존 수탁자 책임(fiduciary responsibility) 범주에 ESG 편입
  3) UN PRI 출범을 통한 ESG 주류화
  4) ESG의 발전 방향
6. 화석연료 투자철회(FFD) 운동을 통한 ESG 이행 준수 모델_대학
7. UN SDGs 이행 모델_대학 및 기업

표_대학 및 기업의 사회책임(SR) 글로벌 아키텍쳐 전개 과정_종합

구분	대학시민 (Academic Citizenship)	기업시민 (Corporate Citizenship)	비고
Totality (사회책임) Nice-to-have Comprehensive Approach	USR(1972)	CSR(1972)	UNCHE(스톡홀름선언) **A New Global Ethic Norm**
	↓	↓	
	대학 사회공헌	기업 사회공헌	사회책임 실천 활동
	↓	↓	
	CSV(공유가치창출)	CSV(공유가치창출)	사회책임 실천 결과
Selective Impact (사회책임) Must have Selective Approach	지속가능관리 (Sustainability Management) **탈루아르 선언(TD, 1990년)** →	지속가능경영 (Sustainability Management)	**경제, 사회, 환경 선택과 집중을 위한 전략**
	↓	↓	
	Devestment Campaign (화석연료 투자철회 운동) →	ESG(2005)	**투자 원칙 선택과 집중 강화 (E, S, G 관련 요소 평가)**
	↓	↓	
	2030 UN SDGs(2015)	2030 UN SDGs(2015)	**인류 공동의 달성 목표 (17개 목표, 169개 세부목표) 선택과 달성 목표 구체화**

Ⅴ. 대학시민 및 기업시민의 실천을 위한 통합적 발전 방안

1. 대학시민 및 기업시민의 실천을 위한 지식 플랫폼
2. 대학시민 및 기업시민의 통합적 발전 방안
3. 대학과 기업 파트너십을 통한 국가적 당면 과제 해결 제안

Ⅵ. 결론

본 논문은 UN SYSTEM 내에서 발전된 개념인 대학의 사회책임(USR), 기업의 사회책임(CSR), 사회공헌,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공유가치 창출(CSV), 대학시민, 기업시민, 지속가능발전(SD), ESG, 유엔 지속가능발전목표(UN SDGs) 등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같은 지향점을 가진 선순환 모델 속에서 동일한 성격(性格)의 용어라는 것을 제시하였다. 또한 대학시민 및 기업시민의 실천을 지원하는 지식 플랫폼으로 지역협력대학과 이해관계자 자본주의 등장 배경과 상호 연관성을 설명하였다. 교육과 연구 기반의 대학과 기업 파트너십은 학생을 위한 인턴십 및 고용, 교원과 함께하는 공동 연구 및 프로그램, 특히 중소 및 중견기업 임직원의 역량 및 국제 경제력 강화는 대학, 기업, 학생, 교원 및 지역사회 간의 유대감을 높이고 상호 호혜적인 성장 기회를 제공한다는 정책 제안을 하였다. 또한 세계 경영대학(원)에서 운영하는 유엔 책임경영교육원칙(UN PRME) 사례를 교육과 연구를 기반으로 한 우리나라 대학과 기업 파트너십의 새로운 모델로 모든 학문 분야로 확대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긴밀한 대학과 기업 파트너십은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변혁시키는 강력한 모멘텀(momentum)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 김창환, 대학과 지역사회가 협력을 강화하는 기제로써 대학의 사회적 책임(USR) 연구, 고등교육 2020, vol.3,no.1,pp. 25-54 (30 pages)

· Boyer, E. (1996). The scholarship of engagement. Journal of Public Service and Outreach 1(1), 11–20.